

2021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국어 필답고사 문제지

출제문항 : 30문항, 시험시간 : 50분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한의학과		

※ 3점: 1~4, 6, 8, 11~12, 15~19, 21, 23~24, 26, 28~30번. 4점: 5, 7, 9~10, 13~14, 20, 22, 25, 27번
 ※ 본 문제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대전대학교 있으며 무단으로 출판, 게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01]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은 드론이 무엇인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드론 관련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 드론이라고 불리는 대상의 범위가 넓어졌고 드론의 용도 또한 매우 다양해졌습니다. 오늘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더욱 발전한 드론 관련 산업의 다양한 성과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드론 택시입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17년에 독일의 한 박람회에서 전시된 드론 택시의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드론과 달리 비행체 내부에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좌석이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다음 화면을 보여 주며) 이 화면은 방금 보신 드론 택시의 주요 제원을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글자와 수치를 눈여겨봐 주십시오. 2인승이며, 최대 비행 속력인 시속 70km로 이동할 때 최대 27km를 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도심에서 일반 택시를 이용하던 고객층을 많이 끌어들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드론 택시가 상용화된다면 관광 상품으로 많은 인기를 누릴 수 있고, 나아가 도심의 교통 체증 문제를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안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이와 관련된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용화되기까지는 몇 년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낚시용 수중 드론을 보시겠습니다. 물속에서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비행체에 한정됐던 드론이라는 용어가 확장된 의미로 쓰인 경우라고 하겠는데요, 이 드론은 내장 카메라로 촬영한 물속의 모습을 조종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해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음파 탐지기를 통해 물고기가 많은 지점을 알려 주고, 조명 장치를 통해서 물고기를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지금 보시는 것은 수중 드론이 촬영하여 전송한 스마트폰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조종자가 스마트폰에 연결된 VR장비를 눈에 착용하면 마치 자신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물고기 떼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낚시용 수중 드론은 이미 시판되고 있지만 아직은 가격이 높아 대중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바로 드론을 탐지하는 시스템입니다. 왜 드론을 탐지해야 할까요? (대답을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사생활 침해, 정보 유출, 테러 등 드론을 악용하려는 시도에 맞서 보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AB산업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드론의 성능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 드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도 점점 높아져 드론 탐지 시스템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 주며) 이 화면은 드론 시장 규모의 연도별 추이와 드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상품 시장 규모의 연도별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양쪽 모두 꾸준히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 주며) 지금 보시는 것은 전파를 이용하여 반경 1km 이내로 접근하는 드론을 감지하는 기계 장치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접근과 이동만을 감지하는 것

이 아니라 드론이 촬영하고 있는 영상이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 면에서 개인이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크지만 보안을 매우 중시하는 일부 기업은 이미 이러한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드론 관련 산업의 최근 동향을 보여 주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물건도 새로운 쓰임새를 생각해 보거나, 그 물건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기술과 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발표자의 시각 자료 활용 계획이다. 위 발표에 반영되지 않은 계획을 고르시오.

- ① 드론 택시에 사람이 탈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 있음을 청중이 확인할 수 있게 하자.
- ② 드론 택시의 성능에 대한 정보 중 강조하고 싶은 정보는 색상을 활용하여 강조하자.
- ③ 수중 드론이 촬영하여 스마트폰으로 전송한 물 속 장면을 직접 보여주자.
- ④ 드론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를 통해 피해의 심각성을 알 수 있게 하자.
- ⑤ 드론 시장 규모의 변화와 드론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한 상품 시장 규모의 변화를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하자.

[02~05] (가)는 두 친구의 대화이고, (나)는 대화를 마친 후 함께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진수: 선생님께서 내 주신 작문 과제가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청소년의 자세에 대해서 쓰는데 생각해 봤어?

미영: ㉠응,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해서 그러는 거지? 그러면 이제 슬슬 준비해야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 생활이라는 건 용돈 아껴 쓰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건가?

진수: 용돈이라……. ㉡난 언제나 아껴 쓴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 너도 그런 적 있어?

미영: 나도 그렇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건가? 아니면 사고 싶은 게 많아서 그런가?

진수: 난 계획을 잘 안 세우는데……. 교통비 얼마 정도 빼놓고는 나머지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어. 그래서 용돈이 항상 모자라는 것 같아.

미영: 바로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과제를 내 주신 거 아닐까? 용돈을 받으면 교통비로는 얼마를 쓸지, 친구들과 놀 때는 얼마를 쓸지 미리 생각을 해 놓는 게 필요하니까.

진수: 그렇기는 한데, 사실은 아껴 쓰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유혹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야.

미영: ㉢나도 그래. 세 개에 999원 이렇게 팔면 알뜰하게 구입하는 것 같아서 꼭 필요한 게 아닌데 산 적이 있거든.

진수: 그게 일종의 판매 전략 아닐까? 나도 그렇게 뭔가를 산 적이 있어. 막상 필요한 물건도 아닌데 말이야. 우리 부모님도 가끔 인터넷이나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시더라고. ㉣39,900원 이런 가격이 붙은 물건, 실제로는 100원 차이인데 4만 원보다 훨씬 더 싸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제품에 넘어가는 걸 말하는 거지?

미영: 맞아. 그러면 우리가 얘기한 그런 제품을 조사해서 보여 주면서 소비자를 유혹하는 판매 전략을 설명하면 어떨까?

진수: 응, 그리고 사람들이 왜 그런 제품을 선택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

미영: ㉤그래, 그리고 나서 그러한 판매 전략에 유혹되지 않을 방안을 소개하면 되겠다. 물론 돈을 무조건 안 쓰는 게 좋다는 말이 아니라 합리적 소비를 하라고 주장하는 거지.

진수: 응. 무조건 아껴 쓰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라는 거지.

미영: 그리고 판매자의 전략에 속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면 되겠다.

진수: 그렇지. 선생님이 이 과제를 할 때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그래야 독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

(나)

사람들은 합리적인 선택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 공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제품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바람이 잘 통하는 여름 신사 바지라든지 집에서 손쉽게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운동 기구가 그렇다. 제품의 질이 특별히 뛰어나다거나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두어 시선을 끄는 것이 아니라, 어쩔지 필요할 것 같은 제품들이 그 대상이 된다. 공교롭게도 이런 제품들은 가격 책정 방식도 다들 비슷하다. 그 유명한 39,900원이다. 비싼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름 저렴해 보이는, 어찌 보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제품에 가격을 매기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쉽게 지갑을 열도록 유도하기 위해 여러 방식을 고민할 것이다. 이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격 책정 방식이 단수 가격 전략이다. 단수 가격 전략에서 ‘단수’란 끝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단수 가격 전략이란 제품 가격의 끝수를 활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1달러짜리 물건의 가격을 0.99달러로 책정하거나 10,000원짜리 물건의 가격을 9,989원으로 책정하는 방식처럼 말이다. 이러한 단수 가격 전략은 홈쇼핑 채널이나 대형 마트의 매대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필자도 문구점의 계산대 옆에서 999원에 세 자루인 볼펜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당장 필요하지 않은데도 말이다. 이런 가격 책정 방식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수 가격 전략은 소비자에게 제품이 저렴하다는 인식을 심어 준다. 소비자의 심리적 저지선인 이른바 가격 저항선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정한 가격이 40,000원일 때에 해당 제품의 가격을 39,989원으로 책정한다면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저렴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저렴하게 인식하는 것은 사람들이 숫자를 읽는 방식과도 관련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숫자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는다. 40,000원과 39,989원은 실제로는 11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사람들은 숫자를 읽을 때에 왼쪽의 숫자를 먼저 보기 때문에 ‘40,000’과 ‘30,000’의 차이를 먼저 인지하게 된다. 그래서 11원의 차이를 실제보다 더 큰 차이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

2. (가)의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 ②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이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질문하고 있다.
- ③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면서 자신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④ ㉣: 대화 참여자는 자신이 상대방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 ⑤ ㉤: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추가하고 있다.

3. (가)에 나타난 대화의 흐름과 내용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의 예를 각각 제시하자. 그러면 독자들이 합리적 소비와 비합리적 소비를 구분할 수 있을 거야.
- ② 소비자가 가격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하고 가격을 잘 살피는 것이 합리적 소비의 출발이라고 제시하자. 그러면 독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의 개념을 인식할 수 있을 거야.
- ③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려고 상점에 들어갔다가 값비싼 물건을 추가로 샀던 일을 제시하자. 그러면 독자들이 상품의 가격이 또 다른 소비를 유도하는 미끼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 ④ 끝자리 가격만 보고 혹해서 당장 필요 없는 물건을 샀던 우리의 경험을 들어 가격에 속아 물건을 사지 말자고 제시하자. 그러면 독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에 필요한 마음가짐을 알 수 있을 거야.
- ⑤ 우리도 비슷한 제품인데 값이 더 비싼 물건이 더 좋아 보여서 샀던 적이 있다고 제시하자. 그러면 독자들이 높은 가격이 품질을 보증한다고 생각하는 심리에 주의해야 함을 이해할 수 있을 거야.

4. (나)를 작성할 때 사용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념을 정의한 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예상되는 반론에 대해 통계 자료를 근거로 반박하고 있다.
- ③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관련된 전문가의 견해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다.
- ④ 주장에 대해 제기될 반론을 제시하고 이를 재반박하여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 ⑤ 주장이 실현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5. (나)의 마지막 문단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자 할 때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단수 가격 전략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제시할 것.
- 청소년의 합리적 소비를 촉구하는 방향을 제시할 것.

- ① 단수 가격 전략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불법적이거나 나쁜 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자가 선택한 전략에 대한 판단의 책임은 소비자인 우리 청소년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 ② 단수 가격 전략은 판매를 위한 합리적인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판매자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③ 19,900원과 20,000원은 단 100원의 차이이지만, 소비자는 그보다 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는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심리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단수 가격 전략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 ④ 단수 가격 전략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값이 싸다는 인식을 하게 만들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사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 청소년들은 소비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도하는 가격 책정 방식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벗어나 한정된 금액 내에서 짜임새 있는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⑤ 단수 가격 전략은 제품의 가격과 품질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어 준다. 두루뭉술하게 가격을 책정한 것보다 백 원 단위까지 정확하게 책정된 가격을 보면서 소비자는 제품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고 인식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수 가격 전략은 제품 가격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소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06~0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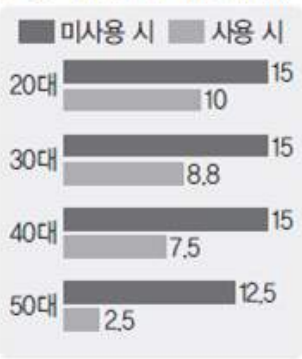
작문 시간에, 사회적인 문제에 관한 주장을 담은 글을 써서 신문에 투고해 보라는 과제를 부여받았다. 나는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보면서 길을 건너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기억이 떠올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 문제를 해결하자는 내용으로 논설문을 썼다. 이를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고 적절성을 검토한 뒤에 개요를 작성하였다. 그 후 쓰기 및 고쳐 쓰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내용 및 표현을 계속 수정해 나갔다.

(나) 수집한 자료

1. 연구 결과

2. 국내 현황에 대한 설문 조사 및 통계 자료

스마트폰 사용 여부와 보행자의 인지 거리(단위: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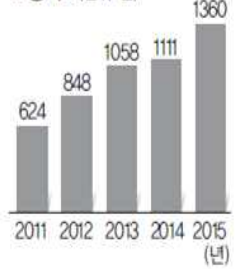
가. 보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날 뻔했다.



나. 스마트폰 관련 보행자 교통사고(단위: 건)



3. 전문가 의견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해 전 독일에서 ‘스마트폰’과 ‘좀비’를 합성하여 만든 ‘스몐비’라는 신조어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지요. 중국에서는 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걷는다 하여 ‘디터우[低頭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로 인한 사고도 이어지고 있어요. 2015년 12월 중국 저장성에서는 스마트폰을 보며 걷던 20대 여성이 강으로 추락해 숨졌고, 같은 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는 스마트폰에 정신이 팔린 30대 남성이 절벽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요. 미국 뉴저지 주 포트리스 시는 ‘스몐비’들에게 85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독일 뮌헨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스마트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등을 개발했고, 아우크스부르크에서는 ‘스몐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바닥에 LED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이처럼 해당 국가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들은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우리 사회에 큰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다) 작성한 개요

주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이자.

- I. 서론 ㉠
- II. 본론
 - 1. 실태와 문제점 ㉡
 - 2. 문제의 원인 ㉢
 - 3. 해결 방안
 - (1) 의식 개선의 측면 ㉣
 - (2) 제도 정비의 측면 ㉤
- III. 결론

6. <보기> 는 작문 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사가 해 준 조언이다. (가)~(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보기>

사회적 문제에 관한 글을 쓰는 것 역시 전체적인 작문 계획에 의거해 내용을 생성하고 조직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해. 먼저 주제를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개인적 경험에서 얻은 생각을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의식으로 확장해 보거나,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사회 문제가 무엇인지를 떠올려 보는 것이 도움이 돼. 이런 종류의 글들은 대체로 ㉢자기가 관심을 가진 사회 문제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장을 제시하는 성격을 띠게 되는데, 작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제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게 되고, 그 자료에 대한 이해와 점검을 바탕으로 ㉤글감에 대해 체계적인 사고를 전개하여 내용을 조직하게 되지. 글을 쓰고 고치는 단계에서 작문 상황

에 맞게 내용이나 표현을 계속 수정해 나가는 것은 알고 있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7. (나)를 활용하여 (다)의 ㉠~㉣을 구체화할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서 '(나)-2-나'와 '(나)-3'을 활용하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이 유발하는 위험의 심각성을 언급할 수 있겠어.
- ② ㉡에서 '(나)-2-나'와 '(나)-3'을 활용하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비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미비한 우리의 현실을 지적할 수 있겠어.
- ③ ㉢에서 '(나)-1'과 '(나)-2-가'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사용에 있어서 연령과 중독성 간의 관계가 교통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할 수 있겠어.
- ④ ㉣에서 '(나)-1'을 활용하면, 보행자의 인지 거리 감소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겠어.
- ⑤ ㉣에서 '(나)-3'을 활용하면, 우리나라에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대한 제재 수단이 있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겠어.

8. (다)의 ㉣에서 제시할 방안의 일환으로 <보기>와 같은 포스터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문구를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조 건 >

- 완결된 한 개의 문장으로 구성하되 경어체를 구사할 것.
- 그림의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다의어를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일 것.

- ① “빠르게 걸을래요? 아니면 안전하게 걸을래요?”
- ② “시야의 구멍이 인생의 구멍이 될 수도.”

- ③ “스마트폰은 내 손안의 마약이다.”
- ④ “주의력을 잃었습니다. 미래가 사라졌습니다.”
- ⑤ “빠져 있다간 빠져 버릴 수 있습니다.”

[0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형태소는 의미를 지니는 최소의 문법 단위이다. 이때, 의미를 지닌다는 말은 어휘적 의미나 문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뜻으로, 가령 ‘꽃이 피었다’의 ‘꽃, 피-’처럼 어휘적 의미를 지닌 것을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라고 하고, ‘이, -었-, -다’처럼 문법적 의미를 지닌 것을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라고 한다.

그런데 형식 형태소 중에는 문법적 의미뿐 아니라 어휘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는 형태소들도 있다. 예를 들어, ‘군말, 군살’ 등에 쓰이는 파생 접사 ‘군-’은 ‘쓸데없는’ 정도의 뜻을 지녀 어휘적인 성격도 있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형식 형태소로 분류한다. 또한 파생 접미사라고 하더라도 ‘높이, 같이’에서의 ‘-이’는 문법적인 의미를 강하게 띠는 반면에 ‘명예롭다’의 ‘-롭-’이나 ‘잡히다’의 ‘-히-’ 같은 말들은 일정 정도 어휘적인 의미도 지닌다. 즉, ‘-롭-’은 ‘그리함 또는 그럴 만함’의 뜻을, ‘-히-’는 피동의 뜻을 지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학교 문법에서는 형식 형태소로 취급한다. 마찬가지로 ‘조차, 까지’ 등의 보조사들 역시 다소간 어휘적인 의미를 지니더라도 학교 문법에서는 격조사와 함께 형식 형태소에 포함시킨다. 이런 말들을 분류하기 위해 별도의 형태소 유형을 만드는 일은 오히려 형태소의 체계를 복잡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학교 문법에서는 조사와 같이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기능과 파생 접사와 같이 단어를 파생하는 기능을 ‘문법적 의미’라는 표현에 포함하여 조사와 파생 접사를 형식 형태소로 분류한다.

한편, 형태소는 자립성 여부에 따라 ‘책, 오늘’처럼 단독으로 쓰이는 ‘자립 형태소’와 ‘읽-, -어라’처럼 의존적으로 쓰이는 ‘의존 형태소’로도 나누는데 후자에는 붙임표(-)를 붙인다. 단, 조사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단어로 보아 붙임표 없이 쓴다.

그런데 ㉠형태소들 중에는 다른 형태소와의 결합에 제약이 아주 심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오솔길’의 ‘길’은 ‘논길, 눈길, 뱃길, 갯길’ 등에서처럼 다양한 형태소들과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오솔-’은 ‘길’과만 결합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된 곳’이라는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인 ‘-막’ 역시 ‘오르막, 내리막’ 정도로만 쓰일 수 있다.

9.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에 쓰인 형태소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우리는 그를 정답게 맞이했다.
- ㉡ 우리 비밀은 너만 알고 있어라.
- ㉢ 형은 자세를 낮추어 공을 받았다.
- ㉣ 그녀는 지우개로 글씨를 모두 지웠다.
- ㉤ 그들은 결심을 한 듯 손을 굳세게 마주 잡았다.

- ① ㉠의 ‘-답-’은 ‘어떤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지니지만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 ② ㉡의 ‘만’은 하나의 단어로 취급하며 형식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로 분류된다.
- ③ ㉢의 ‘-추-’는 ‘낮다’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 ④ ㉣의 ‘-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지니지만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 ⑤ ㉤의 ‘굳-’은 ‘세다’와 결합하여 새로운 단어를 파생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로 분류된다.

루소는 인민들이 그 법을 잘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입법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인민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바람직한 인민은 잘못된 관습이나 미신을 따르지 않는 인민, 불의의 침해를 받더라도 공포에 휩싸이지 않는 인민, 이웃 나라들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웃 나라들에 대항할 수 있으며 침략국을 물리치기 위해 이웃 나라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인민, 다른 인민들에게 견디기 어려울 만큼의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인민, 부유하지도 빈곤하지도 않으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인민이다.” 이런 조건을 갖춘 인민을 찾기란 극히 어려울 수 있으나 루소는 이런 인민이야말로 진정한 사회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건이라고 생각했다.

루소는 또한 법을 제정한 다음에는 이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를 구성하고 통치자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통치자가 인민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만들 수 있는가? 루소는 통치자가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전체 인민의 정기 집회를 내세웠다. 그 집회는 통치자에 대한 신임 여부와 현 정부 형태에 대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전체 인민이 만장일치로 원하는 경우에는 통치자와 정부의 교체를 넘어 사회 계약까지도 파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 체제의 변경은 사회 혁명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폭력적 혁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루소는 통치자를 비롯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를 따르지 않는 인민을 올바르게 교화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아닌 종교나 교육의 도움이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했다.

루소가 말하는 정치 체제는 전체 인민의 만장일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곳에 모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입법권은 오직 전체 인민에게만 있는 권리로서 대표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고대 아테네에서와 같은 직접 민주주의를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루소의 사회 계약론은 국가의 크기와 권력이 커진 상황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있지만,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계약의 주체가 인민이라는 점에서 근대 시민혁명의 씨앗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저서가 민주주의 사상의 고전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모세: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

*리쿠르고스: 고대 그리스 시대 스파르타의 입법자.

*누마: 로마의 제2대 왕.

1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핵심 내용과 역사적 의의를 설명하고 있다.
- ②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 있지만 장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은 서술하고 있지 않다.
- ③ 루소의 사회 계약론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비교하고 있지 않다.
- ④ 루소의 사회 계약론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구성 요소 간 중요성의 위계를 고찰하고 있다.
- ⑤ 루소의 이상적 정치 체제와 고대 아테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1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루소는 사회생활을 하며 인간은 자유를 구속받게 되었지만 자유와 구속이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 ② 루소는 좋은 인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정부를 구성한 후에 유능한 입법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했다.
- ③ 루소는 진정한 사회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에 부응하는 바람직한 인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 ④ 루소는 구성원들이 사회 계약에 의해 일반 의지에 복종할 때만 궁극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했다.
- ⑤ 루소가 생각하는 이상적 정치 체제는 나라의 크기가 크거나 권력이 비대해진 국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상황에 따라 ㉡과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 ② ㉠은 ㉡, ㉣과 달리 사회 계약을 할 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다.
- ③ ㉠은 ㉣ 중에서 공공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지이다.
- ④ 국가가 올바르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 ㉣보다 ㉠을 앞세워야 한다.
- ⑤ ㉣은 ㉠과 달리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14.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한 루소의 반응을 추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A국은 작은 영토를 가진 나라로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어느 날 A국에 B국의 배 한 척이 들어오면서 혼란이 시작되었다. 선원들을 통해 A국 인민들은 B국이 A국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우수한 나라이며 A국이 가난한 것이 통치자의 사욕 때문임을 알게 된 것이다. A국 인민들은 정기 집회를 열고 ㉠A국 통치자의 불신임을 결의하고, 개인적으로 손해를 입는 인민도 있었지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만장일치로 B국의 선장을 ㉡새로운 통치자로 추대했다. A국의 통치자가 된 B국의 선장은 A국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높여 놓았다. 그러나 그가 특정 지역 출신 인민들을 우대하면서 A국 인민의 불만이 높아 갔다. 결국 A국 인민들은 정기 집회를 열어 통치자를 교체하자는 의견을 모았지만, 통치자는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의 비호를 받으며 그 자리를 내놓지 않았다. 무력으로 통치자를 몰아내자는 의견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아, 일부 인민들이 폭동을 일으켜 통치자를 몰아내고 자기들끼리 정기 집회를 열어 ㉢또 다른 통치자로 교체했다.

- ① 루소는 통치자가 공동의 이익에 해가 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기 집회를 내세웠으므로 사욕 때문에 A국을 가난하게 만든 ㉠을 교체하기 위해 정기 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하겠군.
- ② 루소는 그 누구도 인민의 위에서 군림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므로 ㉡가 A국의 경제적, 문화적 수준을 높여 놓은 후에는 곧바로 통치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하겠군.
- ③ 루소는 공동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지를 일반 의지라고 했으므로 A국 인민이 사적인 손해를 입으면서도 전체 이익을 위해 ㉡의 추대에 동의한 것은 일반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하겠군.
- ④ 루소가 말한 사회 혁명은 폭력 혁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통치자의 자리를 내놓지 않는 ㉡를 폭동으로 몰아내는 것에 찬성하지 않겠군.
- ⑤ 루소는 모든 인민의 만장일치로 통치자를 교체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A국 인민의 일부가 ㉡를 ㉢로 교체한 행위를 인정하지 않겠군.

15. <보기>의 ‘홉스’와 윗글의 ‘루소’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홉스는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갖는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는 권리인 자연권이 혼란의 주범이라고 보았다. 인간의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며, 거기에는 오직 공포와 죽음의 위험만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이를 면하기 위해 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합의를 전제로 사회 계약을 맺고 국가를 형성하는데, 이때 생명의 위협에 저항할 권리와 생명 보존의 수단을 안전하게 확보할 권리 같은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양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 ① 홉스와 루소는 사회 계약이 구성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생각이 일치한다고 할 수 있군.

- ② 홉스는 주권자인 지배자에게 구성원의 권리를 양도해야 한다고 한 반면, 루소는 개인의 권리를 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군.
- ③ 홉스는 국가의 지배자인 국왕을 절대적인 존재로 규정했고, 루소는 통치자를 정기 집회에서 만장일치를 통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군.
- ④ 홉스가 자기 보존과 자기 이익을 무제한적으로 추구하면 사회가 혼란해진다고 한 것처럼, 루소도 지나친 사적인 이익의 추구를 경계하고 있군.
- ⑤ 홉스는 생명권을 제외한 모든 자연권을 양도해야 한다고 했고, 루소는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와 능력 등 모든 것을 전적으로 공동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군.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호흡을 하고, 혈액을 순환시키는 등 생명 유지를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며, 일어나 운동과 같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한 에너지도 필요하다.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의 총량을 대사량이라고 하는데, 대사량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과 운동과 일 등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인 활동 대사량의 합이다. 기초 대사량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성별, 연령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보통 체중이 무거울수록 기초 대사량이 크지만, 단위 체중당 기초 대사량은 체중이 작을수록 크다. 인체에서 기초 대사량의 조절은 주로 갑상샘이 담당하는데,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 대사량이 지나치게 커지거나 작아져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갑상샘 항진증은 기초 대사량이 커져서, 갑상샘 저하증은 기초 대사량이 작아져서 문제가 생기는 병이다.

사람은 대사량을 충족하기 위해 음식 속의 영양소를 산화하여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두뇌 활동이나 신체 활동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양소인 포도당($C_6H_{12}O_6$) 1몰이 완전히 산화하면 이산화 탄소 6몰과 물 6몰이 생성되고, 686kcal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러한 산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400^{\circ}C$ 이상의 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일어나기는 어렵다. 체내에서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하여 반응이 일어나며, 포도당 1몰이 완전히 반응했을 때에는 이산화 탄소 6몰, 물 12몰과 ATP 38몰이 생성된다. ATP는 아데노신에 인산기가 3개 달린 화합물인데 끝부분의 인산기가 떨어져 나갈 때 1몰당 7.3kcal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반응 과정에서 생성된 물이나 이산화 탄소는 신체 외부로 직접 배출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한 영양소는 몸에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데 사용된다. 대부분의 과다 영양소는 체내에 지방으로 축적되어 체중을 증가시킨다. 반대로 영양 섭취가 부족하면 먼저 지방을 소모하고, 지방이 고갈되면 단백질을 소모한다. 그러나 영양소섭취가 부족하면 인체는 그에 적응하게 되므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도 저하된다.

사람은 이와 같이 영양소의 산화를 통해 생성된 에너지를 이용해 근육을 움직이는데, 실제 근육을 움직이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는 20%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체중 70kg인 사람이 신체 활동으로 시간당 260kcal의 에너지를 소모했을 때, 이 중 80% 이상은 열로 변한다. 이 정도의 열이 몸 안에 남아 있을 경우 시간당 $3^{\circ}C$ 이상 체온이 상승하는데, 이 열을 외부로 방출하지 않으면 생체 기능은 붕괴될 수 있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은 체내의 열을 방출하기 위해 주로 피부를 이용한다. 그러므로 피부 표면적이 넓은 것은 그만큼 많은 열을 방출할 수 있으며, 많은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람을 포함한 동물들의 기초 대사량은 다르지만 단위 표면적당 기초 대사량, 즉 기초 대사량을 피부 표면적으로 나눈 값이 거의 일정한 이유는 바로 열의 방출과 관련이 된다.

몸에서 생성되는 열은 체내 깊은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생성된 열이 피부를 통해 방출되기 위해서는 열이 피부로 전도되어야 한다. 열이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흘러가기 위해서는 두 지점 사이에 온도 차이가 있어야 하므로 피부 표면의 온도는 체내 온도보다 낮아야 한다. 피부 표면에서는 기본적으로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열이 방출된다. 외부의 온도가 낮을수록 복사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하며, 피부 주변 공기의 흐름이 빠를수록 대류로 방출되는 양이 증가한다. 그렇지만 외부의 온도가 높을 때에는 대류나 복사로 열을 방출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때는 피부 표면에서 땀의 증발을 통해 방출하는 비중이 늘어난다. 물의 증발 잠열은 540kcal/kg 정도이므로 1리터 정도의 땀의 증발로 540kcal의 열을 제거할 수 있다. 땀은 스트레스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분비될 때 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중추 신경에서 체온 상승을 감지할 때 난

다.

인체는 온도에 민감하여 체온이 높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높아지고, 반대로 체온이 낮아지면 기초 대사율이 낮아진다. 이러한 점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이다.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동물들은 체온을 낮추고 활동을 하지 않는 방법, 즉 동면을 통해 대사량을 최소화하여 에너지를 구하기 어려운 겨울철을 나기도 한다. 반대로 여름철에는 에너지를 충분히 섭취하면서 열의 방출을 원활하게 해야 한다. 털때문에 땀으로 열을 배출하기 어려운 동물들은 호흡을 통한 열의 방출도 활용한다. 폐에서 배출되는 공기는 호흡 계통에서 증발되는 수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의 경우 이러한 통로로 방출하는 열량이 시간당 9kcal 정도로 적지만 동물들은 얇고 짧은 호흡을 통해 열의 방출량을 늘린다.

*기초 대사율: 실제 측정된 기초 대사량과 표준 기초 대사량의 차이를 표준 기초 대사량으로 나누어서 구한 백분율.

16. 윗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상샘 항진증이 있는 사람은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② 긴장할 때 땀이 나는 것은 체온 상승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 ③ 개들이 여름에 헐떡거리는 것은 열의 방출량을 늘리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 ④ 사우나에서는 복사를 통한 열의 방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땀을 흘리게 된다.
- ⑤ 선풍기를 켤 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은 피부 표면에서 대류를 통해 방출되는 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17.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가)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 릴리퍼트인들은 키가 걸리버의 1/12 정도였지만 신체 구조나 대사는 물론 생활 모습도 영국 사람들과 같았다. 소인국의 왕은 걸리버가 자신들보다 부피가 12³배 크다는 것에 착안해 매일 걸리버에게 123인 1,728명분에 해당하는 음식을 제공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나) 영화 A에는 범죄자를 액화 질소 탱크에서 급속도로 냉동시켜 영하 196℃의 상태로 수십 년 동안 가두어 두었다가 소생시키는 감옥이 등장한다. 냉동 감옥은 개구리를 급속도로 냉각시켰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어 두면 소생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사람의 체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은 얼면서 세포를 파괴하지만 부동 물질로 이루어진 개구리의 체액은 초저온에서도 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의 체액을 개구리의 체액과 같은 물질로 바꾸어 놓고 냉각시키면 기초 대사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며, 소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 ① (가): 걸리버에게 1,728명분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걸리버의 체중과 기초 대사량이 릴리퍼트인의 1,728배라는 것을 추산한 것이므로 타당한 수치라고 할 수 있군.
- ② (가): 걸리버는 릴리퍼트인 보다 1,728배 많은 열을 방출해야 하므로 열을 식히기 위한 특별한 장치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 하겠군.
- ③ (나): 냉동 인간이 소생하려면 냉동 중 기초 대사에 사용된 열을 효율적으로 제거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군.
- ④ (나): 냉동 인간은 기초 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냉동 인간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는 장치에 대한 내용은 추가할 필요가 없겠군.
- ⑤ (나): 냉동 인간 중에는 체내에서 약간의 산화 작용이 발생하여 서서히 체온을 회복하면서 소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겠군.

1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학생: 선생님, 밑글을 읽다 보니까 음식을 안 먹는 게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방만 소모할 때까지 굶으면 빨리 살을 뺄 수 있지 않나요?

선생님: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면 일단 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해서 학습이나 정신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이어트 후에는 전과 같은 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 때문에 체중이 증가할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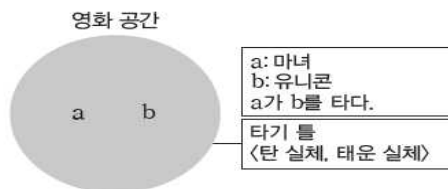
- ① 체온이 하강하여 배출하는 땀의 양이 줄어들기
- ② 체내 지방이 손실되어 지방 섭취량을 증가시키기
- ③ 대사량 중 기초 대사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기
- ④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소모되지 않는 영양소가 많아지기
- ⑤ 근육의 에너지 효율이 줄어 열로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아지기

[19~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는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쳐 발화되고, 그 발화들이 모이면 하나의 담화가 된다. 발화된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는 인지 의미론이 있다. 인지 의미론에 따르면 언어의 의미는 언어 그 자체에만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하나의 발화는 독자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발화와의 관련성, 배경지식을 고려해야 명확하게 분석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인지 의미론에서는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 역시 담화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리고 언어의 의미에 대한 연구도 의미 구성에 대한 인지적 조작을 해명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지 언어학자 포코니에는 언어는 의미를 구성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말하며, 인지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포코니에는 ‘정신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에 따르면 정신 공간은 담화 상황에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 생각하고 말할 때 머릿속에 구성되는 임시적인 개념적 영역이다. 이 정신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 원리에는 ‘공간 구축소’, ‘요소’, ‘특성’과 ‘관계’가 있다.

우선 ‘공간 구축소’란 새로운 정신 공간을 구축하거나 이전에 구축된 정신 공간들 사이를 이어 주는 언어단위를 말하는데,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으로는 시간 공간, 현실 공간, 가상 공간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오늘’은 시간 공간, ‘학교에서’, ‘집에서’는 현실 공간이다. 그리고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영화에서’, ‘꿈에서’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가상 공간도 있다. 그리고 정신 공간은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요소’를 포함한다. 요소를 나타내는 언어 단위는 명사나 명사구 등으로, ‘홍길동’, ‘이순신’과 같은 고유 명사, ‘그’, ‘이것’과 같은 대명사가 그 예에 해당한다. 또한 정신 공간이 구축되고 새로운 요소나 기존의 요소가 설정되는 것 외에 ‘특성’과 ‘관계’에 대한 정보도 나타낸다. 즉 정신 공간 내에 있는 각 요소에 부여된 특성을 상술하는 것은 물론, 특정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정보인 관계도 처리한다.



<그림>

예를 들어 ‘영화에서 마녀가 유니콘을 타다.’라는 발화를 정신 공간의 개념을 도입해 표현하면 <그림>과 같다. 이 담화에서 ‘영화에서’라는 가상 공간은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된 공간이다. 정신 공간은 대개 원을 사용해서 표시하고, 이 정신 공간에 ‘영화 공간’이라는 명칭을 붙이는데, 이것은 이 정신 공간이 영화 내의 세계를 표상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마녀’와 ‘유니콘’이라는 두 요소가 각각 a, b로 표현되어 정신 공간에 도입된다. 여기에 ‘마녀’와 ‘유니콘’과 같은 요소 정보 외에 관계 정보도 나타내야 한다. 즉 a, b의 관계를 나타내는 ‘타다’를 관계 정보에 ‘타기 틀’이라고 별도로 표현하는데, 이 관계는 탄 실체와 태운 실체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탄 실체, 태운 실체>’라는 정보를 함께 기술한다. 만약 주어진 발화가 ‘영화에서 마녀가 사나운 유니콘을 타다.’였다면 ‘유니콘의 특성: 사납다.’라는 특성도 병기해 주어야 한다.

하나의 정신 공간이 구축되고 나면 이 정신 공간은 담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구축된 다른 정신 공간에 연결되기도 한다. 담화상의 특정 시점에서 기준이 되는 정신 공간을 기저 공간이라 하는데, 이것이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여러 정신 공간들과 연결을 이루며 정신 공간은 더욱 확장된다. 이때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 ‘연결자’이다. 서로 다른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요소들 중 동일 대상을 의미하는 ‘연결자’에 의해 정신 공간들은 서로 연결된다. 포코니에는 담화 내에서 이러한 정신 공간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상호 작용함으로써 의미가 생성된다고 보았다.

‘제임스 본드는 스파이이다. 전쟁에서 그는 해군이였다.’라는 담화를 가정해 보자. 첫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영화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이라는 배경지식에 의한다면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영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두 번째 발화에서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은 전쟁 공간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사실 두 발화를 각각 떼어 놓고 보면 각각은 별개의 정보를 담은 발화가 된다. 하지만 ‘제임스 본드’가 ‘그’와 연결된다고 보면 발화의 내용은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 두 발화가 ‘제임스 본드’와 ‘그’라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발화가 기저 공간이 되어 두 번째 발화와 연결 고리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자가 존재하는 정신 공간의 경우 정신 공간끼리는 점선, 연결자는 실선으로 표시되는데,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해석되지 않고 연결자에 의존하여 각 정신 공간에 제시된 정보들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즉 ‘그’에는 ‘해군’ 외에도 ‘스파이’라는 정보가 추가적으로 부여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담화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19. 윗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포코니에는 담화 상황에서 머릿속에 구성되는 일시적인 개념적 영역을 활용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였군.
- ② 정신 공간을 통해 언어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의미의 문제를 인지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이군.
- ③ 담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신 공간이 더욱 확장될 수 있는 것은 기저 공간 내에서 여러 요소들이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군.
- ④ 공간 구축소에 의해 구축되는 공간 중에는 가상 공간처럼 청자로 하여금 현실 공간을 초월하는 상황을 구축하게 하는 것도 있군.
- ⑤ 인지 의미론에서는 언어의 의미 구성 과정이 담화 의존적 특성을 지닌다고 여기므로 언어가 발화될 때 일련의 복합적 인지 과정을 거친다고 보는 것이군.

20. 윗글을 근거로 할 때, <보기>에 제시된 ‘선생님’의 질문에 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다음을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술한 담화로 가정할 때, 포코니에의 ‘정신 공간’ 개념을 바탕으로 이 담화를 분석해 볼까요? 두 발화는 연결자에 의해 연결된 발화라고 가정합니다.

“어제 허약한 오빠가 집에서 쓰러졌다. 그는 오늘 병원에서 의사를 만났다.”

- ① ‘만났다’는 ‘그’와 ‘의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② ‘허약한’은 정신 공간 내에 있는 ‘오빠’에게 부여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③ 명사 ‘오빠’, 대명사 ‘그’는 모두 개념적 체계에 존재하고 있는 ‘요소’에 해당합니다.
- ④ ‘집에서’, ‘병원에서’는 현실 공간에 해당하고, ‘어제’, ‘오늘’은 시간 공간에 해당합니다.
- ⑤ ‘오빠’와 ‘그’는 동일한 정신 공간 내에 함께 존재하므로, ‘오빠’와 ‘그’는 ‘연결자’가 됩니다.

[21~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一生)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 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 항아리.

아침저녁

네 마음속 구름을 닦고
티 없이 맑은 영원(永遠)의 하늘
볼 수 있는 사람은
외경(畏敬)을
알리라

아침저녁

네 머리 위 **쇠 항아리** 찢고
티 없이 맑은 **구원(久遠)**의 하늘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연민(憐憫)을

알리라
차마 삼가서

발걸음도 조심
마음 아모리며.

서럽게

아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눈물 흘려

살아가리라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자락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나)

사회자가 외쳤다

여기 일생 동안 이웃을 위해 산 분이 계시다

이웃의 슬픔은 **이분**의 슬픔이었고

이분의 슬픔은 이글거리는 빛이었다

사회자는 **하늘을 걸고 맹세**했다

이분은 자신을 위해 푸성귀 하나 심지 않았다

눈물 한 방울도 자신을 위해 흘리지 않았다

사회자는 흐느꼈다

보라, 이분은 당신들을 위해 청춘을 버렸다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

그분은 일어서서 흐느끼는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때 누군가 그분에게 물었다, 당신은 신인가

그분은 **목소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유명**인가, 목소리가 물었다

저 **미치광이**를 끌어내, 사회자가 소리쳤다

사내들은 달려갔고 분노한 여인들은 날뛰었다

그분은 성난 사회자를 제지했다

군중들은 일제히 그분에게 박수를 쳤다

사내들은 울먹였고 감동한 여인들은 실신했다

그분의 답변은 군중들의 아우성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 기형도, 「홀린 사람」

2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의미상 이어지는 시구를 행으로 구분하여 대상을 향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나)는 과거와 대비되는 현재의 상황을 묘사하여 대상을 향한 화자의 심경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의문의 형식을 통해 상황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유도하는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명령문의 청자에 화자 자신을 포함하여 특정 행동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화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자유와 평화가 유린되었던 역사적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된 작품이다. 작가는 상징적 소재와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구속받고 억압당하는 상황에서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민중의 슬픈 현실을 지적하며, 민중으로 하여금 모순된 현실을 직시하여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민중이 미래에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인간 본연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는 예언자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① ‘사람들’에게 ‘아침저녁’으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구속받는 상황을 민중 스스로 인식하고 이에서 벗어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는 것이군.
- ② ‘쇠 항아릴 찢’음으로써 ‘구원의 하늘’을 마시도록 촉구하는 것은, 억압적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통해 긍정적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음을 예언자적인 태도로 드러내는 것이군.
- ③ ‘외경’과 ‘연민’은 역사적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민중이 현실을 구속하는 대상을 만나 그 대상에 의해 억압받는 인고의 시간 속에 체득하게 되는 태도를 의미하는군.
- ④ ‘엄숙한 세상을’ ‘서럽게’ 살아간다는 것은, 민중이 스스로가 처한 모순되고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지니며 살아가는 자세를 나타내는군.
- ⑤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를 앞부분과 끝부분에 거듭 언급한 것은, 그동안 민중이 접해온 세상이 인간 본연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군.

2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홀린 사람」은 등장인물과 사건이 제시되는 서사적 전개 방식을 통해 현실에 대한 독자들의 성찰을 우회적으로 촉구하는 작품이다. 이 시는 대중을 선동하여 권력층을 미화하는 인물, 이에 현혹되어 권력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우매한 대중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현실에 타당한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을 용인하지 않는 상황을 보여 준다. 독자들은 사건 전개에 따라 가려져 있던 대상의 실체가 점차 밝혀지는 과정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된다. 이 시는 이러한 거리 두기 방식을 통해 지배층의 기만적 통치 방식과 우매한 대중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반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독자들의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

- ① ‘사회자’가 ‘하늘을 걷고 맹세’하면서 ‘이분’에 대해 ‘당신들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소개하는 말은, 인물의 이타심과 숭고한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물의 실체와는 어긋나는 진술이군.
- ② ‘사회자’의 말을 듣고 ‘사내들’과 ‘여인들’이 ‘울먹’이고 ‘실신’하는 장면은, 미화된 정보에 현혹되어 맹목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중에 대한 비판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이군.
- ③ ‘그분’이 ‘사회자’가 소개하는 내용을 부정하지 않고 ‘군중들’의 ‘박수’를 받는 모습은, 기만적인 통치술로 우매한 대중의 동조를 이끌어 내고자 하는 지배층의 의도가 담긴 행동으로 볼 수 있군.
- ④ ‘목소리’가 ‘그분’을 보며 ‘신’이나 ‘유령’을 언급하다가 ‘사회자’와 ‘군중들’에게 오히려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 정당한 문제 제기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군.
- ⑤ ‘목소리’의 질문에 ‘미치광이를 끌어내’라고 분노하는 ‘사회자’와, 이와 달리 그를 제지하는 ‘그분’의 모습을 보인 것은, 대상에 현혹되는 태도와 대상과 거리를 두는 태도를 대비함으로써 독자의 이성적 판단을 유도하는 것이군.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무도 여러 겹의 마음을 가진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는 웬지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시다
흰 꽃과 분홍 꽃을 나란히 피우고 서 있는 그 나무는 아마
사람이 앉지 못할 그늘을 가졌을 거라고
멀리로 멀리로만 지나쳤을 뿐입니다
흰 꽃과 분홍 꽃 사이에 수천의 빛깔이 있다는 것을
나는 그 나무를 보고 멀리서 알았습시다
눈부셔 눈부셔 알았습시다
피우고 싶은 꽃빛이 너무 많은 그 나무는
그래서 외로웠을 것이지만 외로운 줄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여러 겹의 마음을 읽는 데 참 오래 걸렸습시다

흩어진 꽃잎들 어디 먼 데 닿았을 무렵
조금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에서**
가만히 들었습니다 ㉠저녁이 오는 소리를

- 나희덕, 「그 복숭아나무 곁으로」

(나)

한껏 구름의 나들이가 보기 좋은 날
등나무 아래 기대어 서서 보면
가닥가닥 꼬여 넝쿨져 뻗는 것이
참 예사스러운 일이 아니다
철없이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도** 이제는
잘게 부서져서 ㉡구슬 같은 소리를 내고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로
연등 날 지등(紙燈)의 불빛이 흔들리듯
내 가슴에 기쁨 같은 슬픔 같은 것의 물질이
반반씩 한꺼번에 녹아 흐르기 시작한 것은
평발 밑으로 처져 내린 등꽃 송이를 보고 난
그 후부터다

밑뿌리야 절제 없이 뻗어 있겠지만
아랫도리의 두어 가닥 튼튼한 줄기가 꼬여
큰 둥치를 이루는 것을 보면
그렇다 너와 내가 자꾸 꼬여 가는 그 속에서
좋은 꽃들은 피어나지 않겠느냐?

또 구름이 내 머리 위 **평발을 밟고** 가나 보다
그러면 어느 문갑 속에서 **파란 옥빛 구슬**
꺼내 드는 ㉢은은한 소리가 들린다.

- 송수권, 「등꽃 아래서」

24.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설의법과 단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자기반성적 태도를 암시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대상의 외양적 특징이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활용하여 부정적인 현실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는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해, (나)는 과거 회상의 매개체를 활용하여 시간 흐름에 따른 세태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나)는 근경에서 원경으로의 시선 이동을 통해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5.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시에서는 두 종류의 감각이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인의 주관적 감정이 구체화되는 경우가 있다. 그중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분수처럼 흠여지는 푸른 종소리’와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와 반대로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키는 경우도 있다. 소리 없는 모양을 청각적 이미지로 바꾸는 과정은, 울림과 여운이 있는 시적 정서로 환기되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 ① ㉠은 ‘심심한 얼굴을 하고 있는 그 복숭아나무 그늘’을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시인의 주관적 감정이 구체화된다고 볼 수 있겠지.
- ② ㉡은 ‘주걱주걱 흐르던 눈물’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화자의 비애감을 강조하여 주제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겠지.
- ③ ㉢이 ‘슬픔에다 기쁨을 반반씩 버무린 색깔’의 시각적 이미지로 전이되는 것은, 화자의 불안함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지.
- ④ ㉣은 ‘좋은 꽃’의 ‘파란 옥빛’이 나타내는 시각적 이미지를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이 독자에게 감동과 여운을 주는 시적 정서로 환기된다고 할 수 있겠지.
- ⑤ ㉤은 ‘평발을 밟고 가’는 ‘구름’의 시각적 움직임을 청각적 이미지로 전이시킨 것으로, 대상을 변화시키려는 화자의 주관적 의지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고 할 수 있겠지.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 식구들을 보고 염병에 걸렸다고 저희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한 것은 이해 늦은 가을부터였다. 그 병 때문에 우리 식구들은 한 달가량 광주의 큰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

병원 사람들은 우리 식구가 앓고 있는 병이 결코 염병이 아니라고 했다. 세균의 감염으로 말미암아 생긴 묘한 병이라고 얼뚱설뚱한 소리를 했다. 그 병을 우리 집에서 제일 먼저 앓기 시작한 것은 누님이었다.

처음에는 그게 병인 줄도 몰랐었다. 시집도 가지 않은 누님이 아기를 배었다는 소문이 퍼졌었다. 남이 전혀 배어 볼 엄두도 낼 수 없는 아기를 자기 혼자서만 배고 있기라도 하는 양, 누님의 입덧은 유별나다는 말이 소문의 꼬리에 붙어 다녔던 것이었다. 적어도 그 소문은 아침 안개가 앞 강의 물바닥을 뱀같이 기어들어 와서 마을의 골목길을 가득 채우듯이 온 마을 안에 퍼졌었는데, 그것은 어느 해던가 내 종아리에 생긴 습진 같았다. 미치도록 근질거리고, 그래서 이를 물고 결끄러운 배 조각 같은 것으로 비비거나 긁어 놓으면, 활활 타는 듯 아프면서 시원하고, 쓰린 듯 아리고 쭈시면서 콧물 같은 진물을 눈물처럼 뿜어내 놓던 습진같이, 그것은 우리 식구들을 괴롭혔다.

[A]

가장 못 견뎌 하는 것은 어머니였다. 틈만 있으면 이 집 저 집을 돌면서, 내가 이를 물고 가려운 습진을 비비거나 긁어 대듯이, 입에 거품을 물고 따지며 악다구니를 써 대곤 했다.

“자네 눈으로 봤는가, 봤어? 다리 나왔다고 하면 뭣 나왔다고 하는 세상인데, 뭣이 어찌고 어졌다고? 도둑때는 벗어도 비늘 때는 못 벗는다는 말 모른가? 칼부림 날 소리 하지 말어.”

어머니가 이렇게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에서는 뻗뻗한 배 조각으로 문지르고 긁어 놓은 습진에서 나오는 진물 같은 말들이 계속 새어 나오곤 했다. 진물이 말라붙어 뻗뻗해진 옷이 아픈 곳을 자꾸 스치면서 딱지를 벗겨 놓곤 하듯이 식구들의 속을 뒤집어 놓곤 했다.

“불 안 땀 굴뚝에서는 연기 안 나는 법이여. 무슨 요다구가 있든지 있었으니까 그런 말이 났을 것 아니여?”

“백 사람이 백 말을 해도 내 속만 칼칼하면 되는 법인데, 어쩐다고 곳을 치고 다녀? 원래 방구 편 놈이 구린내 난다고 외치고 다니는 법이라구만.”

처녀가 아기를 배면 다 그러는지 모를 일이지만, 누님은 머리가 자꾸 지끈거리며 아프다고 이마에 흰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다니는가 하면 뒤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가지고 오다가 배를 움켜쥐고 쪼그려 앉기도 하고, 변소에 가서는 여느 때와 달리 오래 앉아 있곤 했다. 누님이 나온 뒤에 가 보면 똥뿜 위에 코피를 흘린 듯 **검붉은 피가 쏟아져 있곤 했다**. 나는 그런 누님이 **불쌍했다**.

(중략)

누님의 관을 뒷골 산밭의 허리 너머에 있는 우묵한 싸리 숲속에 묻은 날 밤의 하늘은 참 묘했다. 그것은 꽃자주에 가지색을 진하게 섞어서 칠해 놓은 듯했고, 거기 달린 별들은 5월 들 논의 자운영꽃들이 마파람에 흔들거리는 것처럼 송알거리고 있었다. 싸리 숲에 달린 녹두알 같은 꽃망울들이나 앞 강둑에 어우러진 개망초꽃들같이 야들거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가 많이 아픈 듯 끙끙 앓으면서 별칭게 된 눈을 감은 채 안방에 드러누워 있었다. 마찬가지로 여느 때 머리가 많이 아픈 어머니는 흰 수건을 질끈 동인 채 부엌방에서 두 발을 뺨고 **주저앉아 방바닥을 때리며 울어 대고 있었다**. 나는 멍해지면서 육신거리는 머리를 낮게 하기 위해 병원에서 가져온 약을 먹고, 누님의 관을 생각하면서 마당으로 나왔다. 누님을 담아 간 관은 하루 전에 내린 눈같이 흰꽃으로 싸고 덮였었다. 아버지가 동네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것이었다. 내 귀로 직접 듣지 않았으므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아버지의 말로는 누님이 죽어 가면서 그렇게 해 달라고 말을 했다던 것이었다.

“아부지, 팔도 사방 돌아다녀 보시오. 나같이 천하게 산 처녀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머슴같이 부리고 안 살았소? 두엄 여 나를 만큼 여 날랐고, 비료 푸대이고 다니면서 뿌릴 만큼 뿌렸소. 가물 때면 밤새워 가면서 물도 댔소. 멸구 일었다, 이화명충 생겼다, 희새병 한다, 도열병 한다, 목도열병 한다, 배추밭에 벌거지 일었다, 깨밭에 뜨물 졌다, 도둑벌레가 고추나무 잘라 버린다……. 그래서 **농약뿌릴 만큼은 뿌렸소**. 김매고, 풀 베고, 외양간의 두엄 끌어내고……. 나 시집갈 때, 뭣을 얼마나 잘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디여? 다 버리고 흰 꽃으로만 싸다가 묻어 주시오. 뒷골, 우리 산밭 옆 당가지에 우묵해 가지고 반반한 잔디밭이 있어요. 가장자리 싸릿대는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그 속에다가 묻어 주시오.”

아버지는 마음이 변해 있었다. 여느 때 이마를 송곳으로 찢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사람이라던 어른이었지만, **누님의 꽃 관**을 마련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듯했었다. 이웃집 큰년이네 아버지를

시켜 꽃 관과 더불어 눈같이 흰 주검 옷까지도 사 오게 한 것이었다.

읍으로 나간 큰년이네 아버지가 바지계에 지고 오던 꽃 관을 생각하며, 나는 지붕 너머로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정 씨네 문중 산 중턱을 쳐다보았다.

“독살스럽고 모진 에미 밑에서, 소 가는 데 말 가는 데 다 가고, 오빠 동생들 웃학교 보낸다고 못 입고 못 먹고, 아이고!”

어머니가 부엌방에서 울어 대는 소리가 가슴을 쥐어질렀다. 나는 북극성 주변에 있는 먼지 알갱이 작은 별 하나와 싸라기만큼 한 별 하나를 바라보았다. 어느 해의 여름날 밤이던가, 평상 위에 누워서 모깃불 연기를 쬐며 누님이, “사람이 죽으면 별이 된단다.” 하던 것이었다. 머리 큰 사람이 죽으면은 큰 별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은 기껏 먼지나 싸라기만 한 별이 된다고 했었다. 그때 송알거리는 별밭을 쳐다보면서 나는 장차 **주먹만 한 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다.

호르호 하는 늑대 울음소리가 정 씨네 문중 산 중턱에서 들려왔다. 이날 밤에 들려오는 늑대 울음소리는 영악스런 짐승의 울음소리답지 않았다. 그것은 봄날 밤에 앞 강둑의 버드나무 숲에서 들려오곤 하던 소쩍새 울음처럼 가느다랗고 맑았다.

- 한승원, 「누이와 늑대」

26. ‘나’의 태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삶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 ② 과거의 긍정적인 기억을 되살리며 당시의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에 겪었던 문제 상황을 되돌아보며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고 있다.
- ④ 현재 상황과 과거 상황을 비교하며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의 원인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 ⑤ 자신의 미성숙했던 과거 행동을 되새기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다.

27.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것을 ‘아침 안개’와 같은 자연 현상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소문의 확산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누님에 대한 소문을 ‘종아리에 생긴 습진’에 관한 ‘나’의 기억과 결부하여 드러냄으로써 가족이 받았던 심리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딱지를 벗겨 놓곤 하듯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을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가족들이 상처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악다구니를 써 대’며 소리쳤던 어머니의 말을 직접 보여 줌으로써 가족이 받은 고통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머니의 행동에 대해 ‘비비고 헤집어 놓은 곳’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어머니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서술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8. 누님의 꽃 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고생만 하다 결국 요절한 딸에 대한 아버지의 회한이 드러난다.
- ② 병에 대해서 무감한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누님의 경고가 드러난다.
- ③ 자식의 죽음으로 인해 절망할 부모에 대한 누님의 염려가 드러난다.
- ④ 자신이 죽은 뒤 혼자 남게 될 동생에 대한 누님의 배려가 드러난다.
- ⑤ 부모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자식으로서 느끼는 누님의 여한이 드러난다.

[29~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람이 운수 불길해서 잠시 잠깐 이런 촌구석에 처백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시베 보들 마시오! 에이 여보쇼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가 게우 오만 원짜리 풀머심 폰수매끼 안 되는 것 같소? 나 임종술이, 이래 봐야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장 들어 본 사람이요!”

그것은 공연한 허풍 아닌 사실이었다. 동대문의 시장 바닥에서 처음에는 목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포장마차를 할 때라든지,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에 손을 대기까지 종술은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좌우간 사장님 소리를 곧잘 들곤 했었다. 딸 하나를 낳아 놓고는 호남 지방의 야산 개발 사업이 한창일 무렵에 마을에 가끔 나타나던 측량 기사 보조원인지 뭔지 하고 눈이 맞아서 달아나 버린 마누라까지도 처음에는 자기를 사장님이라고 불렀었다. 식도 안 올리고 살림부터 차린 그녀를 처음 만난 곳은 그가 한때 단골로 드나들던 맥주홀이었다.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쩔을망정 시방은 사세에 따를 줄도 알아야 장차 또 늘품수가 생기는 뱀이지. 안 그런가? 한번 자알 생각해 보소.”

지칠 줄 모르는 최 사장의 끈기에 힘입어 익삼 씨도 다시 설득에 나섰다.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하는 집에 비단잉어에다 월급봉투를 암낭혀서 한목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삼자루 들고 땅따기하는 배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상으로 왔더니 갔다리 하면서…….”

“완장요!”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였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였다.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종술의 천치스런 질문에 최 사장은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너털웃음을 호탕하게 터뜨렸다.

“이 사람아, 팔 완장 말고 기저구맨치로 사추리*에다 차는 완장이라도 봤는가?”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본래 짬뽕 테가 있는 최 사장이였다. 그는 우연히 튀어나온 완장이란 말에 놀랍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허점을 간파하고는 쥐란 놈이 곳간 벽에 구멍을 뚫듯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로 마음먹었다.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감시원이라고 크막허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 줄 작정이네.”

고단했던 생애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 온 술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뇌리를 스쳤다.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무수한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너울거리는 치맛자락의 한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시장 경비나 방법들의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 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 오던 시비와 단속들, 암거래 조직에 끼어들어 미군 부대나 양색시들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건을 상인들한테 중계하던 시절, 그리고 똑같이 전매법과 관세법의 위반을 전문으로 하는 다른 조직과의 피나는 세력 다툼 끝에 상대방의 밀고로 뒤가 구린 미제 컬러텔레비전을 운반하다가 체포되어 특정 범죄의 가중 처벌을 몸으로 때우던 시절…….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였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였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술한 완장들에 그간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 왔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을 얼마나 또 많이 선망해 왔던가.

완장이란 말 한마디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자신을 종술은 속수무책으로 방관만 하고 있었다.

(중략)

“오매 시상에나, 니가 완장을 다 둘러야?”

“그깟 놈의 것, 쇠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디요, 뭐.”

너무도 놀란 나머지 운암택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처음 맛본 기쁨이 마을 회관 옆 공동 수도 펴 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느낀 놀라움은 널금 저수지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그 규모가 대단한 것이었다. 대체나 이 노릇을 어째야 옳단 말이나.

“너 그것 안 들르고 감시원 헐 수는 없겠나?”

당치도 않은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의 매력 한 가지에 이끌려 말기로 한 감시원이었다. 그런데 그걸 두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아들더러 언제까지고 개망나니 먹고 대학생으로 그냥 세월을 보내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에이 참, 어머니도! 어머니는 동네서 사람대접 조개 받고 살라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여영 못마땅하요?”

“돌아가신 낭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의 심정을 대강은 이해할 것 같았다.

하지만…….

“완장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것도 다아 지 꿇줄 탓인갑다.”

“그 완장허고 이 완장은 엄연히 승질부터가 달르단 말이요!”

훗김에 종술은 그에 또 몽니를 부리고 말았다. 새 출발이 약속된 날, 그 삼삼한 기분에 걸맞게 모처럼 어머니 앞에서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자고 단단히 작정한 바 있었으나 케케묵은 생각으로 아들의 흥을 산산조각 내는 데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 윤흥길, 「완장」

*사추리: 두 다리의 사이.

2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뻘’, ‘소리까장’, ‘뱀이지’ 등의 방언을 사용하였으나 작품의 지역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 ② ‘사추리에다 차는 완장’ 등의 우스꽝스러운 표현을 사용하여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상세한 배경 묘사를 통해 사건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완장이란다!~그 완장 말이다!’ 등의 표현으로 종술의 속마음을 직접 알 수는 없다.
- ⑤ 구두점을 빈번하게 사용하여 인물의 과거 행적을 길게 늘여서 제시하고 있다.

30.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1971년 미국의 스탠퍼드대 짐바르도 교수는 ‘모의 교도소 실험’을 하였다. 짐바르도 교수는 대학의 건물 지하에 실제 교도소와 유사한 공간을 만든 후,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지원자들을 모집하여 이들을 무작위로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로 분류했다. 그런데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역할에 따라 진짜 수감자와 교도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교도관이 된 참여자들은 대부분이 자신들이 행사하고 있는 통제와 권력을 즐기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향을 보였다.

- ① 종술이 저수지 감시원이 되지 않는다면 친절하고 유순한 성품을 유지하며 살게 되겠군.
- ② 종술이 완장을 차게 된다면 그가 과거에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를 억압하는 존재가 되겠군.
- ③ 최 사장이 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을 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그와 권력을 나누기 위한 것이겠군.
- ④ 종술이 과거 인연을 맺어 온 완장에 대한 기억은 자신이 통제와 권력을 행사했던 일과 관련된 것이겠군.
- ⑤ 종술이 처음 저수지 감시원을 거부한 이유는 통제와 권력을 위해 필요한 공격적인 행동을 제한했기 때문이겠군.